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회위원장	유치원장

회의 일시 및 장소	2014년 10월 22일(수요일) 저녁 19:00, 유치원 1층 빛반 교실
참석 위원	학부모위원(6명) - 김윤희, 김진경, 고서연, 신홍주, 정인옥, 김지영 교원위원(4명) - 양순실, 조문숙, 백윤미, 마혜란

의사일정

1. 2014학년도 예산서 보고
2. 2013학년도 결산서 보고
3. 급식운영에 대한 자문

o 간사: 오늘 모임은 총 2 가지 안건에 대한 회의로서, 2014학년도 예산서와 2013학년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 및 급식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4학년도 예산서와 2013학년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 결과, 의견이 있으신지요?

o 김지영위원: 예, 결산을 보니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는지요?

o 양순실원장: 그럴 경우, 결산을 새로운 예산에 반영해 전년도의 초과비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예산과 결산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유치원 건물외관 공사로 인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 올해는 구청지원금에 유치원 예산을 조금 보태어 유아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였습니다.

o 김지영위원: 그러면 큰 단위사업과 그 보다 적은 단위사업을 매년 번갈아 진행하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o 양순실원장: 네. 유아들의 심미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매년 시설투자를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내를 다시 도색할 시기가 되어, 그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o 김윤희위원: 방학 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o 양순실원장: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해 대부분의 공사는 방학 때 진행되며, 도색의 경우, 건조시간을 고려해 여름방학 위주로 진행합니다.

o 간사: 이 외에 예, 결산서와 관련해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o 고서윤위원: 학생복리비는 무엇인가요?

o 양순실원장: 유아들의 위생, 건강 관련하여 병원지출비, 보험비, 상비약구입, 환경위생 전문업체 소독 및 검사 의뢰비 등이 포함됩니다.

o 김지영위원: 연구장학비는 무엇인가요?

o 양순실원장: 교사들의 연수 및 교육과정 연구 관련 교재 구입비용 등을 말합니다.

o 간사: 이 외에 예, 결산서와 관련해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 추가 의견 없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감. >

o 간사: **다음으로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모니터링 해 주신 급식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o 김윤희위원, 정인옥위원: 현재 급식운영에 대해 만족합니다.

o 김지영위원: 홈페이지를 통해 그 주의 급식사진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o 김윤희위원: 우리 아이가 아침을 잘 안 먹으려 하는데, 이유가 "유치원 급식이 너무 맛이 있어 거기서 많이 먹으려고" 라고 하더라구요.

o 김진경위원: 통신문에 있는 급식메뉴가 가정에서 식사 준비할 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메뉴를 보고, 집에서는 다른 메뉴를 한다든지요.
그런데, 지난 진흥원 활동 시, 유아들의 점심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o 양순실원장: 가을소풍을 다녀 온지 오래되지 않아,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김밥과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조리사님 두 분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직접 김밥을 만들고, 진흥원으로 12시쯤에 햇님차 기사님이 배달해 주셨어요.

o 정인옥위원, 김지영위원: 편하고 좋기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o 양순실원장: 사면 편하지만, 만드는 재료, 위생상태 등 잘 모르는 음식을 유아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리사님들께서 번거롭지만, 점심을 유치원에서 준비할 경우, 직접 하고 있습니다.

o 고서연위원: 우리 아이 도시락을 보면 항상 다 비워져 있던데, 매일 그렇게 다 먹나요?

o 마혜란위원: 골고루 적정량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는 있으나, 아이의 컨디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합니다. 억지로 먹이지는 않지만, 먹어보도록 권유는 하며, 국물 등의 잔반은 가방에 넣기 때문에 깨끗이 비워줍니다.

o 김진경위원, 김지영위원: 그러면 배식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이 직접 가져가나요?

o 마혜란위원: 3월 한 달 동안 배식을 하며 관찰결과를 토대로 잘 먹는, 많이 먹는, 먹기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음식 등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교사가 직접 배식합니다.

o 백윤미위원: 5세의 경우, 취학 전이라 2학기부터 유아들이 자율적으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o 간사: 급식운영에 대해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해진 안건 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반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카페활동을 어떠신지요?

o 김진경위원, 정인옥위원: 자주 들어가 보는데, 가입자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고,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의견을 남기시는 경우는 없어요. 글이 없으니까, 당연히 댓글도 없고...
조회수는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 보면서 올리는 것 같아요/

o 간사: 통신문에, 팝업창에 홍보를 계속 올리는 데도 그래서 안타깝네요. 안건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함께 나누고픈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하면 좋은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o 김지영위원: 혹시 입학설명회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개별상담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저처럼 소심하거나 낯가림이 심한 엄마들의 경우, 직접 찾아와 상담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약수유치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회가 좋을 것 같은데요.

o 양순실원장: 설명회를 전에는 진행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또 해드려야 하고, 준비된 설명회로는 프로그램, 환경, 유아들의 생활모습 등을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수유치원의 교육에 대해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o 김윤희위원: 설명회를 해도 환경은 못 보게 한다든지, 그 분위기로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 위축된다던지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을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어렵구요. 일일이 상담해 주시는 게 어려우실만도 한데, 개별상담으로 안내하시면서 아이들의 생활모습도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의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합니다.

o 양순실원장: 설명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운영하면서 저는 저와 교육관이 맞는 분, 학습지가 아닌 놀이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을 원하시는 분들이 약수유치원에 함께 하셨으면 하고, 그에 따라 현행대로 개별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고서연위원: 전에 가을소풍 시, 비가 오는 날씨로 예보되었는데, 물론 전체 행사가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조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결국 염려되어 우리 아이는 보내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o 정인옥위원, 김지영위원: “도시락을 싸도, 비가 오면 유치원에서 먹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했는데요.

o 양순실원장: 일기예보를 계속 확인하며, 준비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점점 더 날씨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비가 안와서 활동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움직이는 만큼 활동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o 간사: 이에 제가 여름캠프처럼 날씨 맞추기가 어렵다면 가을소풍도 반별활동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동생, 형님, 선생님 모두 모여 함께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말씀하시더라구요.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활동들이 많은 터라, 원장님말씀에 교사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o 김진경위원: 저도 아이가 5살 때는 걱정이 되어 멀리 가는 것은 잘 안 보냈어요.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걱정, 염려가 되신다면 안 보내는 것으로 하고, 감안하셔야죠.

o 양순실원장: 그래서 동의서를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견학 시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날씨부분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부모님께서도 많이 걱정이 되시거나, 사정이 있으시다면 개별 결정으로 참여, 불참으로 동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통신문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쇄 배부되고 있는데, 활용 면에서 어떠신가요?

o 신홍주위원, 김윤희위원: 작년에는 배부 안 되다가 올해 배부되니 정말 좋아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o 양순실원장: 그런데 배부 안 되던 작년과 비교하여 저는 크게 달라진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배부가 안 될 때나 될 때나 항상 잘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동의서를 매번 못 봤다거나, 없다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견학 시 체육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 요리하는 날인데 앞치마가 없는 경우, 소풍 당일 아이 도시락을 놓치시는 경우 등. 통신문을 준비하기 위해 연령별 활동, 일정 등을 체크하고, 조율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인쇄, 배부되게 됩니다. 나름의 노력과 준비가 추가된 건데,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 사실은 내년에는 인쇄배부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탑재로만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o 김진경위원, 정인옥위원, 김지영위원: 안됩니다. 원장님!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붙여놓고 체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잘 보실 텐데, 몇몇 분들만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o 김윤희위원: 홈페이지에 탑재하시면 보기는 하지만, 다 기억하기는 어려웠는데, 인쇄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 없었던 때를 알고 있기에, 더욱 좋은데 아마 올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인쇄배부 처음 시작하실 때 1학기 때 해 보고, 협조가 잘 안되면 인쇄배부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경고처럼, 통신문에 계속 협조가 안 되면 통신문을 인쇄배부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o 신홍주위원: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조사 시,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나가면 어떨까요?

o 양순실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협조가 안 이루어질 때 가장 속상하고, 힘든 것이 유아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통신문을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캐슬, 텐즈힐 쪽으로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리는 가깝지만 막히는 구간이라 유아들의 탑승시간이 길고, 저나 원감이 차량지도를 하는 것이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내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들이 차량지도교사를 하는 곳들도 많지만, 저희는 담임은 아이들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원아모집 때 일정인원이 안되면 운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보조교사를 더 늘리기도 어려워 지금처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o 정인옥위원, 신홍주위원, 김지영위원: 차량운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알지만, 차량운행을 안하시면 안 됩니다. 졸업하는 유아도 있으니,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재원하는 아이들이라 걱정이 됩니다. 몇 번 직접 데리고 왔다갔다하며, 힘들었어요.

o 양순실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유치원의 입장도 헤아려 주십사 전합니다.

o 김진경위원: 올해에 교사의 변동이 많다는 걱정의 얘기들이 들립니다. 어떤 문제때문인지요?

o 양순실원장: 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별반 보조, 소망반 교사의 변동들이 있어 어려웠습니다. 모두 개인의 선택이지, 유치원에서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덕분에 저와 원감, 다른 선생님들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최대한 교사를 뽑을 때 고려해서 뽑지만, 겪어보지 않고 사람을 제대로 다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네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o 간사: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더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양순실원장: 바쁘신 데 늦은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 기 록 자 : 조문숙(인)